

전 남

‘소금명소’ 영광 염산 친환경 천일염 시대

영백염전, 30억 들여 수로·창고 일제 정비 HACCP 공장 준공 눈앞 본격 생산 나서

예로부터 소금명소로 알려진 영광군 염산에 자리한 한 천일염 생산업체가 친환경 천일염 생산에 적극 나서고 있다. <관련 인터뷰 16면> 영백염전(대표이사 민동성·회장 김영관)은 3년 전부터 소금창고의 슬레이트 지붕과 염관독을 덮은 부직포 등 식품환경에 나쁜 요소들을 모두 걷어냈다. 이어 42만9752㎡(13만평)에 이르는 갯벌염전에 사업비 30억원을 투자해 갯벌이 숨 쉬는 도자기관 결정지를 기반으로 수로를 정비하고 환경친화적인 송판 독과 소금대차 및 이송

로·채광지붕의 해수창고(바닷물을 저장하는 곳)·고급목재 소금창고 등 모든 염전을 친환경 시설로 탈바꿈시켰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해 11월 ‘제 15회 저탄소 녹색성장 경영대상’을 수상하고 ISO 22000(국제 식품안전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는 등 국내최고의 친환경 갯벌 천일염전으로 인정받았다. 영백염전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자회사인 염산 천일염유통 영농법인에 총 30여억원을 들여 국내최초로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산

지 종합처리 가공공장을 추진, 준공을 앞두고 있는 등 천일염 분야의 식품위생안전을 선도하고 있다. 산지 종합처리 가공공장은 연산 7000t 규모로 친환경 염전에서 채취한 소금을 숙성한 후 세정→탈수→건조→분쇄→선별→포장 등 재처리 가공과정을 거쳐 이물질이 없는 고급 천일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게 된다. 현재 영백염전에서 생산된 천일염은 미국의 세계적인 소금 소프몰에 고가로 수출돼 ‘코리아 천국소금’으로 소개되고 있다. 또 국내 대형 할인마트와 골프장·호텔 레스토랑·전문식당 등에 납품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최고의 명품소금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 밖에도 영백염전은 염산(靈山) 지역이 소금지명인 점에 착안해 두우

리 갯벌과 서해안 나조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기반으로 ‘소금고장 염산랜드마크 프로젝트’를 추진해 눈길을 끌고 있다. 염산랜드마크는 2만9572㎡(9000평)에 이르는 갈대밭과 갯벌습지에 염생 식물공원을 비롯해 나조 전망대·천일염박물관·천일염 레스토랑 등을 조성, 앞으로 서해안 고속도로와 광주의 접근성이 쉬워 천일염 관광지로 크게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김학용 국회의원이 발의해 농수산식품부 장관과 공동 의장으로 설립한 입법·행정의 공동 포럼인 ‘천일염 세계화포럼’관계자들은 7일 친환경 염전 조성하고 있는 영광 염산면 영백염전을 방문해 작업상황을 살펴봤다. /서부취재본부=조익성기자 ischo@



- 목포시장 배종범, 신안군시장 김동근, 순천시시장 정병휘, 진도군시장 박주현, 고흥군시장 신태균, 해남군시장 이종록, 곡성군시장 이상철, 함평군시장 양규도



섬 돌며 미용봉사 도시순회 봉사활동에 참가한 미용사들이 완도군 소안면 주민들에게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5월부터 전남지역 7개 시군 13개 섬에서 1347명을 대상으로 의료 및 미용 서비스와 전기 안전점검 등 도시순회 봉사활동을 펼쳤다. <전남도 제공>

목포중앙고 영상미디어학과 첫 특성화 학과 지정

목포중앙고등학교(이사장 김호남) 영상(방송)미디어학과가 최근 광주·전남지역에서 처음으로 특성화 학과로 지정됐다. 이번 특성화 학과지정에 따라 중앙고는 타지역 학생을 위한 기숙사 건립과 실습용 취재차량 마련을 위해 양평각서(MOU)를 체결한 유관기관 및 대학교 등과 실무 협의를 마쳤다. 중앙고는 지난 2008년부터 자체 TF팀을 구성해 전국의 선진학교 및 산업체·대학들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영상미디어학과를 지난해 신설했다. 또 서울시립청소년 미디어센터(스스로넷)·관도라닷컴·조선닷컴 등 유관기관 및 산업체·대학교 13개과 교육과정 내실화 및 실습 기자재 공유 등 다양한 MOU 체결을 마쳤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민선 5기 단제장에 듣는다

허남석 곡성군수

“관광객 유치 인프라 확충 최선”

허남석 곡성군수는 취임 일성으로 “현재는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가까운 미래에는 반드시 가슴 벅찬 새로운 희망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허 군수는 “농가소득증대를 통해 군민 모두가 잘 살고 활력 넘치는 농촌을 만들어 가겠다”며 “주력산업인 농업을 살려서 농업을 생명산업, 환경산업·식품산업으로 발전시켜 농촌의 발전과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농업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농정의 패러다임을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한 의지를 피



동체를 만들어 가겠다”며 “독거노인과 청소년 등 취약계층에는 무료급식,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소수자를 배려하는 다양한 복지행정을 실천해 따뜻한 곡성을 만들어 갈 것”을 강조했다. 허 군수는 “명문 우수 중·고등학교를 육성해 도회지의 우수대학교에 진학하도록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학생들이 외국어 등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특기적성 교육에 적극적인 지원과 인재를 뒷받침하기 위해 장학기금 조성에도 박차를 가해 청소년들이 꿈을 키우는 특색한 군정을 펼쳐겠다”고 밝혔다. 이어 “군정에 대한 군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자율적인 분위기 속에서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주민들의 군정참여제도를 활성화하고, 형식적이고 전시적인 행정업무를 지양하겠다”고 역설했다. 허 군수는 “지난 선거기간에 갈등과 반목을 치유하면서 지역발전과 주민행복증진을 위해서는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하면서 군민화합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며 “곡성의 발전을 위해 함께 나아가고 국민들의 사랑과 성원을 가슴깊이 새기면서 결코 자만하지 않고 정직한 자세로 일하는 책임감 있고 부지런한 군수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곡성=김계경기자 kjkim@

생명·환경·식품산업 발전 농가 소득 증대 맞춤형 재가서비스 늘려 노인복지 향상도

력했다. 허 군수는 “푸른 산과 섬진강·보성강 등 청정한 자연생태환경을 잘 살려 천연자원을 보존하고 활용해 자연생태 산업의 선도적 거점 역할과 생태체험관광을 통해 섬진강 가마마을을 더욱 활성화 시켜 나가며, 산재한 충·호·자연·설화를 테마로 한 순환형 관광벨트를 구축해 많은 관광객 유치로 주민소득과 연계시켜 나가겠다”며 “문화와 관광이 조화된 관광개발과 인프라 확충으로 순환형 관광벨트를 구축해 찾아오는 곡성

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허 군수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위해 투자여건을 개선 적합한 경쟁우위 산업과 환경친화적 기업·식품산업을 육성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데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허 군수는 “곡성은 인구의 3분의 1이 65세 이상 노인들로 대부분의 외롭게 살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맞춤형 재가 서비스를 확대하고 노인 및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행복공

여수 보돌바다 적조발생 우려

(나로도~금오도 사이) 울어들 첫 이달 하순께 ... 전남도 피해예방 총력

올해 첫 적조가 이달 하순께 여수 보돌바다를 중심으로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전남도는 이번 장마가 끝나는 시점을 전후해 영양염 공급과 일조량이 급속히 증가하면 보돌바다(고흥 나로도~여수 남면 금오도 사이) 해역을 중심으로 이달 하순부터 8월 초순

까지 유해성 적조가 발생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7~9월 남해안 해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유해성 적조로 말미암은 수산생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협조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시·군, 수산기술사업소에 적조

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산소공급기, 역화산소 등 5200대의 방제장비를 총동원해 민관 합동으로 적조피해 예방에 나설 계획이다. 올해 적조방제사업에는 ▲적조피해 발생전 양식어류 방류 120만마리 6억원 ▲적조장비 및 구제물질 구입 2억원 등 총 8억원이 투입된다. 이인근 전남도 해양수산환경국장은 “성이 조기출하 유도와 양식어류 사건 방류, 명예감시원을 활용한 적조예찰 강화, 신속한 조동방제 등으로 3년 연속 적조피해가 없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지용기자 dok2000@

토지매매. 위치: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대지: 4,000평, 건물: 650평, 전: 9,500평, 합계: 13,500평. - 매가: 40억 5000만원. 광주 ~ 무안 고속도로 (나주 I.C 입구), 동신대 ~ 나주 I.C-국가산업단지 (4차선도로확장 확정). 길잡이공인중개사. 상표등록: 41-0163369호. 헨 011-620-3960 062-381-6000 (상무지구 5.18공원사거리)

믿음 공인중개사. T. 971-4911 H.011-627-0876 (첨단 세종문고 건너 쌍둥이 빌딩 1층). ■첨단지구: 상가 입대: 60m 대로변 2,3층 450평(분할가능) [권장업종: 병원, 사무실, 학원 기타] ■첨단: 인근지역: 진곡, 임곡, 동아면, 남면, 진원면, 대치, 수북면 (전원주택, 전원주택지, 생산, 자연녹지 있음) ■첨단지구: 상업지역토지, 모델부지, 상가건물 모델, 무인텔, 매도(다수보유) ■첨단지구: 상가입대, 음식점, 음악홀, 레스토랑(다수보유), 1층분화기; (옷매장 약 60평 입대) ■첨단지구: 첨단지역에서 오랜 전통있는 저회 업소에 방문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천동 e-편한세상. 선착순 특별분양할인 프리미엄 적용. <총 1096세대> 분양률 95% 이상 입주률 76세대 이상 30% 에너지 절감형 친환경 저에너지 아파트. 111㎡(구, 33평) 로얄층 / 164㎡(구, 49평) 로얄층 191㎡(구, 58평) 로얄층 다수 보유. 142㎡(구, 43평) 로얄층 / 로얄층: 112동 1002호, 112동 1102호, 112동 1201호, 112동 1202호, 112동 1302호, 112동 1402호; 113동 1004호, 113동 1204호, 113동 1404호, 114동 1101호, 114동 1301호, 114동 1401호, 123동 402호. 주변 쇼핑타운 / 교통요충지 / 재개발 예정지로써 투자기회 상승 기대. 입주민들의 찬사를 받고있는 대단지 명품아파트임. 상담문의 062) 368-0789 H.P 010-2587-8552

효성공인중개사. 011-602-4207 0521-6024 (FAX)0521-6026. 공장매매: 하남공단 4차선 9번로변. 대지 4,959㎡ (1,500평), 건물 2,176㎡ (658평), 호이스트 5t, 10t (층고 9m), 매매가 22억 5천만. 평동공단내 2번도로점: 대지 3305㎡ (1050평), 건물 1983㎡, 공장층고높이: 6m~8m, 호이스트 없음 (설치가능), 전기: 300kw, 매매가: 13억원. 전자조립, 물류창고, 기타제조업 적합.

금산공인중개사. T.861-5866 H.011-601-5354 (서평주역 건너 순환도로변). 상무신도심 상업·용·지 (C1지역) 매매. ■위치: 상무병원, 롯데마트 건너편, 삼성화재빌딩 옆 (4면 광로변). ■대지면적: 약 2,850㎡ (180평 분할가능). ■3.3㎡당 매매가: 1,300만원. ■공동 복합 APT 주택가능 (최근 도시계획 변경) ※ 종합병원/상가/오피스 유흥가능. 장점: ① 주상복합(공동 APT) 가능, ② 광로변 최고 광고 효과, ③ 롯데마트, 상무병원 건너 삼성화재 옆 최고의 상권, ④ 최고의 교통 접근성 (당시주요 도로와 광·순환·18번도로), ⑤ 상무신도심 중심 상업, 문화지구. ※ 10층 신축건물 옆 코너

인생열쇠. ☎ 062-383-8982. ■큰 꿈을 가지고 많은 정성과 노력을 다하여도 원하는 바를 성취 못하고 갈 수 없는 장애가 생기는 분. ■현실의 장애를 이겨내고 이루고자 하는 꿈을 실현하고 싶은 분. 소원성취의 길잡이가 되어 드립니다. (정철원, 역술원 아남, 상담료 없음). 부담없이 차 한 잔 하시면서 삶의 지혜를 얻어 가세요.